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김형중*

1. 머리말
2.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3.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사찰에서 청소년의 포교 분야와 방법
4. 학교와 사찰에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
5. 맺는말

■ 한글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 종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한 인성교육 8대 덕목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효도, 예절이다. 이것들은 불교의 오계(五戒: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와 팔정도(八正道: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와 육바라밀(六波羅密: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과 상통한다.

이 논문은 사찰에서의 청소년 포교 방법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을 역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대학입시의 중압감으로 인해 종교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와 연관되는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연구하여 보조교재를 만들어 지

* 소속

도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불교 교단은 사찰과 불교종립학교가 연계하여 청소년 명상센터와 유튜브 청소년 불교방송국 등을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교법사와 퇴직 교법사, 군법사 그리고 명상 전문가가 역량을 모아서 청소년 포교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연구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맞추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청소년 포교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주제어 ● 인성(人性)교육, 청소년 포교, 맞춤형 청소년 포교프로그램, 불교의 수행법, 인성교육진흥법

1. 머리말

청소년은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다. 미래의 불교교단을 짊어지고 이끄러 나갈 동량(棟樑)이다. 종교의 생명은 포교와 전도이다. 교단에 신도가 없으면 그 종교는 생명이 끝이 난다. 국가와 가정의 흥망이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다. 인재 양성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회사, 가정, 종교집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사업이다.

포교가 없으면 불교교단이 유지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한국불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포교전법이다. 불교의 모든 역량을 포교에 투입해야 이 땅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사회를 향도할 수 있다.

이웃종교의 목표와 전략이 첫째도 하나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요, 둘째도 셋째도 선교인데, 우리 불교는 전법 포교에 노력하지 않는다.

특히나 청소년 포교에 미진하다.

부처님은 『불본행집경』에서 다음과 같이 전법선언을 하였다.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치에 맞는 말로써 알아들을 수 있는 설법을 하라.”고 하셨다. 청소년의 교화 방법은 이치에 맞는 말로써 쉽고 재미있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관심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과 소통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주는 일이 불교교단이 청소년 교화와 포교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석가모니가 청소년시기에 인간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문제로 고민하는 시기였듯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이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자기도취, 우울, 열등감, 수치심, 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몰려있다. 그러면서도 자아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이다. 대학입시의 중압감과 각종 청소년 문제로 혼란스러운 청소년에게 불교의 치유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는 올바른 인성 형성과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면 비뚤어진 인간이 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의 무능력자가 되고 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의 교과수업을 통한 불교적 인성교육 방안과 사찰에서 청소년 포교방법과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 포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윤리도덕 인성교육의 과제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불교 신행교육의 내용도 된다. 또한 불교교단이나 사찰에서 청소년을 교화하여 올바른 불자를 만드는 불교교육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본인은 37년 동안 불교종립 중고등학교에서 교법사, 교감, 교장을 하면

서 종교(불교), 윤리 도덕, 철학 교과목을 지도하면서 불교수업과 불교교리가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업교재를 개발했다. 학생들은 항상 대학입시의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사, 국어, 사회, 윤리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관련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수업교안을 작성하여 지도하니 학생들이 불교수업과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교재를 연구한 성과를 책으로 출판한 것이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¹⁾이다. 이 책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교문화재와 한국의 역사를 이끈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었다. 1984년 『불교사상』 9월호에 발표한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²⁾ 그리고 2021년 『시로 읽는 불교와 인생』³⁾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불교시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평론한 것이다. 사회, 국민윤리, 도덕, 국사, 국어, 음악 등 교과서를 연구하여 불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발표해서 시정하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통한 법회 활성화 방안」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문화연구소 주체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을 계발 심의하였다.

본고(本稿)의 2장에서 청소년 인성교육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을 통한 인성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사찰에서의 청소년의 포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볼 것이며, 4장에서는 본고의 핵심과제인 학교와 사찰에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포교 방안이다.

1) 김형중·김문수(2008a).

2) 김형중(1984b), 94-104.

3) 김형중(2021b).

5장에서는 맺는말로서 본 논문을 총괄하고, 급격하게 청소년 문화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의 호기심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안한다.

2.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1)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의미

우리는 세계 최초로 2015년 7월 21일자로 ‘인성교육진흥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인성교육을 위한 5대 핵심역량과 인성교육 8대핵심덕목을 제시하였다. 5대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고, 인성교육 8대핵심덕목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효도, 예절이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의도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규범에 근거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보다는 ‘역량 중심’의 인성교육을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량중심의 인성교육이란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적, 정의적(情意的),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인성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다.⁴⁾

4) 김영래(2017b), 57.

2) 청소년 인성교육의 8대덕목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인성이란 사람이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심성을 뜻한다. 인격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행위의 품격을 뜻한다. 도덕 윤리적인 실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과 인격 교육은 거의 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종교적 인성교육은 일반 도덕적 인성교육과는 다르게 ‘성스러움’, ‘초월성’, ‘무한한 자비심’, ‘무욕(無欲)의 청정심’ 등 이상적인 종교적 체험에 의한 인성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기독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영성교육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신령스러운 품성과 성질을 뜻한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다.

물론 불교에서도 인성은 불성을 뜻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참되고 착한 여래성품(如來性稟)이다. 불교의 인성교육은 불성을 계발하여 이상적인 부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교육이다. 불교의 교육이나 포교의 목표와 일치한다. 영성과 불성이 다른 점은 불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이고,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착한 마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자의 실천 계율인 오계(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飲酒),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자의 실천덕목인 팔정도(定見, 正語, 正思惟, 正業, 正命, 正念, 正定),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보살의 한량없는 네 가지 자비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무량심(慈無量心, 悲無量心, 喜無量心, 捨無量心), 불자로서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강조한 사은사상(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왕의 은혜, 시주의 은혜) 등의 사상과 정신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8대덕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현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 윤리적 측면이 구체적 덕목으로 제시

된 점이 차이가 있다.

예절과 효도, 정직, 책임은 개인의 구체적 윤리적 덕목을 제시한 것이고, 존중과 배려, 소통, 협동심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윤리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불교의 덕목을 바라본다면 오계와 팔정도는 개인 수행덕목이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은 대승보살의 개인 수행덕목과 중생구제, 사회봉사의 실천덕목을 제시한 것이다.

불교의 사은사상은 부모의 은혜에 효도하고 나라의 은혜에 충성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웃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고 봉사하는 실천 덕목이다. 사무량심은 한량없는 중생과 이웃 시민을 향하여 배려와 존중, 희생 봉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팔정도에는 개인의 수행덕목인 올바른 정직과 정의가 나타나 있고, 불교의 계율정신에는 책임의식과 자기 조절 및 준법, 책임의식이 나타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 있다.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협동심, 소통 등이 나타나 있고, 선정바라밀에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조절, 감성정화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지혜바라밀에는 지혜와 용기, 소통, 협동과 화합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⁵⁾

3.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사찰에서 청소년의 포교 분야와 방법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에서 찾을 수 있다. 박선영 교수(1981)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하여 ‘지혜를 갖추고 자비로운 자주인’과 ‘밝고 따뜻한 주체적 인간’으로 정의하였다.

5) 김형중(2018b), 60.

불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요소와 수행방법은 삼학(戒律, 禪定, 智慧), 오계와 팔정도, 육바라밀, 한량없는 네 가지 자비심인 사무량심,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사은(四恩)사상, 깨달음, 회심(回心), 발보리심 등의 실천덕목이 있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수행 방법은 한 마디로 삼학과 육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통해 삼독심을 제거하면 부처와 보살과 같은 인성을 형성하여 궁극으로 성불하는 완성된 인간이 된다. 즉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사찰은 수행과 포교의 센터요, 불자들의 종교적 삶의 문화공동체 공간이다. 사찰의 주지는 사찰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종교지도자이기에 설법자, 상담자, 사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사찰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포교 분야와 방법을 필자 나름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회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②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③ 불교 상담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④ 경전 읽기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⑤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⑥ 염불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⑦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⑧ 선무도(禪武道), 등산, 요가 등 체력 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⑨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⑩ 다도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⑪ 효도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⑫ 인문학 강의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⑬ 호국불교 사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⑭ 108배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⑮ 발우공양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등이 있다.⁶⁾

6) 김형중(2018b), 66.

4. 학교와 사찰에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

1) 학교에서 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법

2016년 1월 발표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은 연차별 인성교육 시행계획보다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다. 학교·가정·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에서는 기존의 계획과는 유사하지만 종합계획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공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핵심덕목과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으로 학교, 관공서, 사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과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교화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불교교단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와 사찰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포교방안이다.

고등학교 윤리·도덕교과서, 국어교과서, 국사교과서, 예체능 교과서, 한문교과서, 진로·상담·직업교과서, 환경교과서 등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불교 관련 내용을 새롭게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불교 포교를 목표로 ‘불교의 교육’ 즉, 종파 수업을 한다면 교육법에 위반이 되지만, 불교의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불교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를 성취할 수 있다.

(1) 윤리·도덕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중고등학교 윤리·도덕교과는 전체가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윤리나 시민생활 윤리의 이론이나 학설이 서구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의 전통윤리나 사상이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불교윤리의 내용이 잘못 기술되어 필자가 37년 전에 문제를 제기하여 교과서를 일부 수정한 일이 있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기술이 잘못된 부분과 불교에 대한 서술이 편향적인 면을 지적하였다. 종교의 정통과 이단을 설명하면서 불교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데바닷다의 비유를 예화로 들면서, 부처님에 대한 데바닷다의 반역 행위를 장장 8줄이나 할애하여 설명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외경(畏敬)하는 종교적 신앙에 거스리는 행위를 이단이라 한다.(82-83p)”고 기술하였다.

필자는 2007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국사·철학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에서 초중고등학교 바른생활, 도덕, 윤리, 역사, 철학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여 잘못된 내용과 기술, 종교적 편향 내용을 지적하여 제8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다.⁷⁾

2015개정교육과정에 의해 고등학교 교과서로서 『고전과 윤리』 교과서가 포함되어, 2018년 3월 1일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행되었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보조 지눌국사의 『수심결』이 『고전과 윤리』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다. 필자는 2018년 『금강경』의 보조교재로서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을 집필하여 간행했다.⁸⁾

7) 김형중(2007b), 79-95.

중고등학교 윤리·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관련 내용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편집하여 교육한다면 인성교육, 입시교육, 청소년 포교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국어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불교시, 불교소설, 불교수필, 향가, 불교가사 등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 향가, 고려가사, 조선의 시조 등에 불교 사상이 나타나 있다. 한글로 노래한 근대시와 현대시에도 불교의 내용을 다룬 시가 무수히 많이 있다.

다음은 2001년에 필자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교육부)와 문학교과서(13종)에 나타난 불교문학 작품을 조사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교육부, 2001년 현행), 문학교과서(13종)에 나타난 불교 문학 작품(표1)⁹⁾

국어교과서 (교육부)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한용운) 불국사기행(현진건), 구운몽(김만중), 안민가(충답사)
문학교과서 ① 지학사 [I] (박갑수·김진영 이승원 저)	님의 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구운몽(김만중)
② 지학사 [II] (김봉균·최혜실 저)	님의 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원정(타고르), 만복사저포기(김시습), 등신불(김동리)
③ 대한교과서	님의 침묵(한용운), 여승(백석), 동승(함세덕), 단군신화 (일연), 구운몽(김만중)
④ 민문고	제망매가(월명사), 구운몽(김만중), 무소유(법정)
⑤ 학문사	단군신화(일연), 만복사저포기(김시습), 구운몽(김만중), 무소유(법정), 월인천강지곡(세종), 바닷가에서(타고르)

8) 김형중(2018).

9) 김형중(2001b).

⑥ 선영사	알 수 없어요(한용운), 제망매가(월명사), 찬기파랑가(총답사), 만복사저포기(김시습), 월인천강지곡(세종), 조신의 꿈(일연)
⑦ 금성교과서 [I] (박경진·김태식 송백천·양왕용 저)	당신을 보았습니다(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⑧ 금성교과서 [II] (박동규·서대석 송백현·김태식 저)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월인천강지곡(세종)
⑨ 천재교육	알 수 없어요(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찬기파랑가(총답사), 조신의 꿈(일연), 구운몽(김만중),
⑩ 노벨문화사	님의 침묵(한용운), 조신의 꿈(일연), 구운몽(김만중), 제망매가(월명사)
⑪ 대일도서	님의 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만복사저포기(김시습), 제망매가(월명사), 구운몽(김만중)
⑫ 두산동아	알 수 없어요(한용운), 님의 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동승(함세덕), 궁핍한 시대의 시인 [한용운]-[김우창], 현진건의무영탑(신동욱), 찬기파랑가(총답사), 국화 옆에서(서정주),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제망매가(월명사)
⑬ 한샘출판	님의 침묵(한용운), 찬기파랑가(총답사), 조신의 꿈(일연), 함께 있고 싶어서(법정)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이 잘 나타난 불교시를 뽑아서 해설하고 평론한 책이 『시로 읽는 불교』이다. 이 책을 편찬하고 저술한 목적을 필자가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해의『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는 필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김광섭의『저녁에』에 나오는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조오현의『파도』에 나오는 “천경(千經) 만론(萬論)이 다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김춘수의『꽃』에 나오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천

양희의 「운명」에 나오는 “온몸이 가시로 된 나무가 있다 그늘에서만 사는 나무가 있다 햇빛을 받으면 죽는 나무가 있다” 등의 시구는 한없는 눈물을 흐르게 했다.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한용운, 서정주, 백석, 박목월, 윤동주, 조지훈 등등 기라성 같은 근현대 한국시단을 이끌었던 시인의 명시와 불교시를 모아서 시 세계를 해설하는 작업을 함께 시도하였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명품시를 통해 머리를 쉬게 하고, 대학수능시험에 도움도 되게 하는 일석이조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다.¹⁰⁾

(3) 국사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우리나라 역사는 불교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사교육은 불교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학생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국난 극복의 과정에서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형성하도록 한다.

특히나 불교의 호국정신과 높은 철학적 사상과 사유는 문화민족으로서 뛰어난 정신적 우수성을 보여 주었다. 국가문화재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필자는 2008년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의 책을 출간하여,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불교 문화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재의 뛰어난 예술성과 거기에 담긴 재미나는 일화와 불교 사상을 살펴보았다.

중고등학생에게 국사교육을 할 때 불교역사 이야기와 고승들의 일화와 깊은 철학적 사상을 참고 교재로 편찬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입시공부, 불교공부, 인성교육 등 다각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불교가 국가가 외침을 받아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불교는 고려시대 몽고의 침

10) 김형중(2021b), 1.

락을 받아 승군장 김인후(金麟厚)가 처인성(處仁城; 현재의 용인)에서 몽고 장수를 화살을 쏘아 죽임으로써 세계 최강의 몽고군을 물리쳤고, 임진왜란 때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왜구를 물리쳤다. 병자호란 때는 승려들이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전투에 참전하였다. 호국불교는 한국불교의 특성이다.

(4) 사회교과와 예술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사회교과서의 내용은 내가 사는 우리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해와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집단과 생활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법률, 국제문제, 환경 등에 대하여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나 동서양의 문화를 대표하는 불교와 크리스티교,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 사회문제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교과는 인성교육과 종교의 올바른 교육에서 중요하다. 2015년 조계종사회연구소와 불광연구원이 개최한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의 종합토론에서 김형중은 다음과 같이 교과서 기술에서 종교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미래엔)』199쪽의 ‘일상생활 속의 종교 갈등’에서는 ○○시에서 불교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는 시 예산으로 유명 불교 사찰에 국제 불교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계승·전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종교 단체들은 시 예산으로 불교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다른 종교 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¹¹⁾

포교원 인성교육 계발·인증위원회에서 2016년 인성프로그램으로 심의한「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¹¹⁾는 명상과 예술놀이를 통한 교사 인성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사찰에서는 수행과 강의, 기도, 법회 등의 순수 종교적 체험프로그램 이외에도 공예, 도자기, 서예, 한지 만들기, 천연염색, 서각, 전각, 불화그리기, 불교문화재 보호활동, 연꽃등 만들기, 국악 판소리, 회심곡 등의 풍부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5) 한문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책은 불교경전이다. 삼국시대에 중국의 유학승에 의해서 중국의 선진문물과 함께 전래되었다. 한자를 공부한 승려와 사찰은 민족의 선구자로서 국민을 가르치는 스승님(스님)이 되었고, 사찰은 교육을 시키는 장소인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왕의 스승이나 국가의 스승인 왕사나 국사가 승려 가운데서 배출되었다.

물론 현행 학교에서 한문교과의 교과서의 내용은 유교경전의 내용이 중심되어 편찬되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한문교육의 전통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사찰에서의 불교강원 교육이다. 우리나라 불교경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한역경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경전이 한문용어가 대부분이다. 불교교리나 경전을 이해하려면 한문 공부는 필수적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지배하면서 문교부는 한글학자 최현배

11) 김형중(2015b).

12) 동국대학교 불교아동교육연구소(2016b).

선생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한글전용이 단행되면서 학교교육과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한자가 배격되게 되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은 불교교단과 전통사상을 유지 발전하려는 집단이다. 한 순간에 나라의 언어정책이 한자에서 한글과 영어로 전환된 것이다.

작금에 와서 나라의 석학들이 한자와 한글의 겸용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유는 국어사전의 70%가 한자어이고, 특히 학술용어가 대부분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독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국가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자교과서의 내용에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유익한 내용을 발췌하여 한자학습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한다면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가 있다. 사찰에서도 신도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천자문』¹³⁾, 『불교 한자입문』¹⁴⁾,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¹⁵⁾, 『왕초보 한문 박사가 되다』¹⁶⁾, 『한글세대를 위한 부수 그림한자 50』¹⁷⁾ 등을 가르친다면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포교에 유익한 사찰의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금강 스님이 해남 미황사에서 동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6) 상담·진로·직업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사찰에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방해요소가 되는 학교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왕따, 술 담배 마약 등 약물중독, 핸드폰 중독, 자살, 가정 문제, 외모와 건강 문제, 이성 문제, 학교 성

13) 덕진(1995a).

14) 경완(2018b).

15) 김형중(1992).

16) 김형중(2012b).

17) 김형중(2017a).

적, 직업 선택, 입시 진학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공통적인 문제로 일종의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사찰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장애가 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과 학업 성적과 대학 진학의 상담까지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각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거대한 불교교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청소년시기에 불교교육기관, 의로기관, 복지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사찰이나 불교기관에서 일하는 사찰행정관리사, 명상지도사, 상담교사, 요가지도사, 사찰요리사, 사찰행사기획사, 포교사 등에 대한 소개나 이해가 불교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진로를 제시해주는 진로와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능력, 개성, 적성, 환경 등을 이해하고 중학교 때부터 직업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

(7) 환경교육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학교교과에 자유선택교과로 환경(생태계교육)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나라의 학교교육에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이해하는 것과 직접 환경오염을 막는 실천교육이 중요하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계 윤리와 생명존중 사상이 불교의 환경사상이다.

발우공양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의 양을 그릇(발우)에 담아서 100% 모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식사법이다.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줄일 수 있고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청소년은 사찰에서 발우공양을 함으로써 식사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발우공양의 과정과 의미를 통해 한 끼의 식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인연이 함께 함을 깨닫게 된다.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밥을 짓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등을 느끼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식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화합, 협동, 배려, 소통 등을 깨닫는다.

본인이 송월주 총무원장과 함께 1992년 공해추발운동불교인모임(현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전국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5년 동안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명륜당, 문묘)에서 ‘전국 청소년환경·통일청소년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다. 10개 장관상을 시상하고, 환경교육과 문화재 애호활동으로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해 왔다. 국내 최초의 불교환경도서인『불교와 환경보전』(1998년)¹⁸⁾을 편찬 간행하였다.

불교의 사찰음식(精進料理)는 채식 위주의 웰빙식품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찰요리를 교육시키는 것은 요리사를 장래 희망으로 꿈꾸는 청소년에게 좋은 정보와 관심을 갖게 하는 직업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2) 사찰에서 청소년 포교방안과 인성교육

불교수행의 요체는 계율·선정·지혜 즉, 삼학(三學)이다. 사찰에서나 학교, 가정에서도 삼학수행을 통해서 불교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삼학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을 인성교육과 포교를 해야 한다.

먼저 불교의 포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길이 있다. 첫째, 설법, 즉 법문이다. 부처님이 법문을 행하신 후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소수 또는 다수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행하는 것이다.

18)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편찬(1998b).

둘째, 문서에 의한 방법은 교리와 신앙 해설 등을 인쇄매체 형식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언어만으로는 논리적 귀결을 얻기 힘들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히 기술해 줄 수 있는 인쇄물이 지닌 특징을 잘 활용한 것이다.

셋째, 영상매체에 의한 방법이란 다양한 첨단 통신매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새로운 포교방법이다. 오늘날 뉴미디어시대에 적합하도록 방송, 영화, 비디오, 광고판, 컴퓨터, 통신 등을 사용하여 다량의 전달 내용을 광범위한 지역에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기에 급변하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 가장 포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나타난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한 포교 방안인 불교방송국, 유선 케이블TV, 실물화상기, 멀티비전, 화상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포교방법과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포교 방안이다. 요즘 통계조사에 의하면 25%가 저녁식사 후 TV를 시청하고, 60% 이상이 각자 방에 들어가 유튜브를 본다고 한다.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대세이다.

(1) 명상을 통한 인격교육

선(禪)은 인식의 주체가 되는 마음을 핵심으로 추구하는 수행법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선정을 통한 심성의 순화(정신건강)와 직관으로 얻어지는 통합적인 지혜는 대립과 분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을 제고(提高)시켜 학습효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선정(禪定)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은 상태에도 달하도록 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법보단경』에는 “만일 갖가지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선정이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명상을 통하여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힘을 얻는다. 하루에 10분씩 3회만 명상을 해도 학습에 초능력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보여준 바 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효과가 증명되었고,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즐겨 했음에 주목하여 명상이 창의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들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사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종립학교 법당을 이용하여 청소년명상센터를 건립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명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법교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법사나 군법사 출신 법사가 명상전문가와 함께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포교에 도움이 된다.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에서 『2015 청소년인성프로그램』가운데 「청소년 활동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으로 인증하였다. 개발자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명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명상은 우리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은 명상입니다. 활동명상은 놀이와 춤, 자연, 연극, 소리, 호흡, 창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통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명상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¹⁹⁾

2018년 인성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중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은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²⁰⁾과 「신통방통 육방통」²¹⁾이 있다. 정순희가 2021년 박사학위논문으로 「초등학교 명상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²²⁾을 발표하였다.

19) 성부현(2015b), 100.

20) 금해(2018b).

21) 선업(2018b).

(2) 염불을 통한 인성교육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수행법으로 불도 수행의 기초가 된다.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등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소리 내어 부르는 염불과 부처님의 상호(相好)나 그 공덕을 마음으로 관상(觀想)하는 염불이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수행으로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염불을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에 힘을 얻어 무한한 환희심과 자신감을 얻는다. 부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염불자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 정화된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염불과 함께 절 수행을 함께 하면 정서적 안정과 정신 집중에 효과가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3) 108배를 통한 인성교육

현재 재가불자에게 불교수행의 중심이 되는 두 축이 명상(선정)과 절(오체투지)이다. 2007년 조계종 포교원은 『절 수행 입문』(조계종출판사, 2007)을 간행하여 절 수행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해설하였다.

절은 예경의 뜻으로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며, 수행법이다. 예불은 부처님께 무수히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예경하는 의식이다.

절하는 수행법으로 108배와 1,080배, 삼천배, 일만배 등이 있다. 108배를 할 때는 108월을 하나 새기면서 하기도 하고, 108참회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자가 부처님께 소원을 기도하거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참회할 때는 절을 하면서 한다. 절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기 때문에 종교적 회

22) 정순희(2021b).

심(回心)의 계기가 된다.

자신의 전생의 업장이 녹아내리는 큰 종교적 체험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만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성교육에 알맞는 수행법이다. 특히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절 수행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 연구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차정연은 절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대해 2016년에 박사학위논문²³⁾을 발표하였다.

(4) 다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청소년의 다도교육은 현재 학교 현장이나 사찰, 차문화재단에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 증명되었다.

청소년의 다도교육은 다도를 통하여 바른 예절을 갖춘 행동을 습득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공경심, 배려심 등 기본적인 인격의 덕목을 차로서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차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차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여 올바른 정신을 지니도록 수련시켜준다.

청소년의 다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는 차를 마시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또 감정의 순화와 인간성의 회복이다. 차는 일종의 약초이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도 효과가 있고, 학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각성의 효과와 집중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2017년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에서 김의정의「다도 예절인성지도사 준사범·사범과정」²⁴⁾과 서화교(지운)의「청소년 행복찾

23) 차정연(2016b).

24) 김의정(2017b).

기 차명상 ‘자비다선’²⁵⁾ 두 편의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여 보급하였다. 이후 김의정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도예절 인성교육 교과서』²⁶⁾을 발행하여 우리나라 다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5) 『부모은중경』 효도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효도는 인간의 모든 행위 기본이 되고, 인간의 인성과 덕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위는 인간의 악행 가운데 가장 나쁜 악행이라고 하였다.

불교의 사은(四恩)에는 부모의 은혜, 국왕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삼보(三寶)의 은혜가 있다. 특히 『부모은중경』은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불교의 효경(孝經)이다. 양주동 선생이 지은 「어머니 마음」의 가사가 『부모은중경』의 어머니의 열 가지 큰 은혜(십중대은)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효(孝) 부모님 감사합니다」²⁷⁾가 있는데, 『부모은중경』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을 감상하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효심과 인격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삼국유사』의 독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서의 기본서이다. 특히나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이 없었다면 가야국 500년의 역사도 전

25) 서화교(2017b).

26) 김의정(2017a).

27) 희봉(2016b).

설적인 신화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 사대주의자 김부식이 쓴『삼국사기』에는 고조선과 가야국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구지봉에 가야 건국신화 김수로왕의 신화가 있고,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 올 때 함께 온 파사석탑'과 수로왕비릉(허황후릉)이 있다. 최근 가야고분이 경남 창원군 교동에서 250기가 발굴되었다.

『삼국유사』는 역사와 인문학의 보고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불교, 사상, 문화, 예술,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귀중한 기록을 망라하고 있다. 일연 스님이『삼국유사』를 편찬할 때는 고려가 원나라의 침략으로 망국의 위기 상황이었다. 일연 스님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목숨을 희생한 박제상과 같은 호국영령에 대한 기록을 강조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박제상의 충절과 망부석이 된 부인의 정절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역사이야기이다. 신라 문무왕이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국정신과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전설은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 믿음이 고려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

중고등학생의 수준과 교육과정에 맞는 불교 인문학적인 내용이 담긴 경전이나 불서를 선택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재를 편찬하여 독서지도를 한다면 획기적인 포교 방법이 될 것이다.

(7) 『님의 침묵』 시문학의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2001년 필자가 청소년 범죄 활성화 방안으로 불교문학 작품을 통하여 불교를 이해하고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법회안을 만들어 보기 위하여「문학작품을 통한 범죄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안)」을 발표하였다.³¹⁾

수많은 불교 문학 작품(시·소설·시조·수필·논설) 가운데서 우선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첫 번째 시도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한용운의 시를 법회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법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보려는 것이다. 불교 관련 내용은 수학능력시험에도 수차례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만해 한용운의 시집『님의 침묵』이 절을 만 개를 짓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불교를 흥법 포교했다고 한다.

① 불교문학 작품을 법회안으로 활용하는 필요성과 효과

신라 때 승려들이 읊은 향가, 고려 때 균여가『화엄경』보현보살의 10대 원을 향가로 읊은「보현십원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나옹의「서왕가」, 한글 연구의 기본이 되는 세종의『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한용운의 민족독립 사상이나 그의 시집『님의 침묵』 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이다.²⁸⁾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승려가 아니더라도 돈독한 불심을 가진 재가 불자들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훌륭한 문학작품과 문화예술을 창조했다. 우리 민족문화나 사상, 동양문화를 이해하는데 불교를 모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대학수능시험에 국어 시문학에 한용운의 시가 수차례 출제되었다. 가장 많이 출제된 단일 인물이 만해 한용운이다.

②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13종)에 나타난 불교 문학작품의 빈도수(표1)

1. 한용운 ① 님의 침묵	7종	4. 김만중 구운몽	8종
-------------------	----	---------------	----

28) 김형중(2001b).

② 알 수 없어요	3종	5. 김시습 만복사포기	4종
③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1종	6. 범정 (수필)	
④ 당신을 보았습니다	1종	① 무소유	2종
⑤ 나룻배와 행인	1종	② 함께 있고 싶어서	1종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한용운의 문학 비평)	1종	7. 세종대왕 월인천강지곡	3종
2. 일연 ① 단군신화	9종	8. 김동리 (소설) 등신불	1종
② 조신의 꿈	4종		
3. 향가 ① 제망매가 (월명사)	9종		
② 찬기파랑가 (충담사)	4종		
③ 안민가 (충담사)	1종		

③ 대학수학 능력시험 ‘언어 영역’에 출제된 한용운의 시(표2)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언어영역, 듣기평가)

96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문제
2. 이번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집 ‘님의 침묵’ 맨 끝에 실려있는 ‘독자에게’ 하는 제목의 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 : 2번)
<p>독자에게</p> <p>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p> <p>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여러분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p> <p>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p> <p>그 때에서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이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p>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얽어 갑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물음>이 시인이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된 생각은? 답4

- ① 나의 시에는 부끄러운 고백이 많다.
- ② 시는 슬퍼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 ③ 이제 더 이상 시를 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 ④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의 슬픔을 극복할 것이다.
- ⑤ 독자가 알아주지 아니하는 시는 무의미한 시이다.

④ 한용운의 시(수험생이 꼭 읽어야 할 11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찬송」, 「복종」, 「타고르의 시를 읽고」, 「명상」, 「이별은 미(美)의 창조」, 「군말」 등이 있다.

(8)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 예불, 발우공양, 108배, 스님과의 차담(茶談), 연꽃등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대학입시나 학교 성적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찰에서 3박4일 단기 출가하여 승려처럼 수행하면서 마음을 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나와 내 마음 알기’의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은 인성교육에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경기도 봉선사는 경기도지방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나비채(나눔, 비움, 채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인성교육에 효과를 본 좋은 사례가 있다.

템플스테이 청소년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좋을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이학주 교법사가 개발한 「도토리카드를 활용한 팔정도 행복코칭」이 있다. 이학주 법사는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11년 서울대학교행복연구센터의 ‘행복교과서프로젝트’ 안내공문을 접하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행복수업을 편성하여 주 1시간씩 실시해 본 결과 ‘행복’을 주제로 교법사가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교교과의 복수선택 의무조항에 따른 어려움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거부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전통 수립 활동을 ‘행복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보편적 지평에서 실시하였다.”²⁹⁾

(9) 유튜브 청소년법회를 통한 인성교육

법회는 불법을 설법하거나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스님과 신도가 한 곳에 모여 불사를 행하는 집회의식이다.

법회는 법사스님의 설법이 중심된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에게 법사스님의 감동적인 설법은 큰 영향을 준다.

청소년법회는 대부분 젊은 스님이나 불자 교사가 지도법사를 맡는다. 사찰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청소년을 위한 전문 교화프로그램을 가지고 법회를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은 방황하는 사춘기에 사찰의 법회활동을 통하여 법회의식을 익히고,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또래집단의 친구들을 사귀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법회 활동을 통하여 사찰이 수행공동체로서 정체감과 불자로써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오프라인 일반법회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청소년법회 또한 휴점 상태이다. 그 대안으로 유튜브 청소년법회가 있다. 물론 개인 유튜브의 개설은 성공이 쉽지 않다. 치밀한 계획이나 구상이

29) 이학주(2018b), 194.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시도한다면 중도에 포기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 유튜브법회는 포교원과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불교종립초중고등학교학생을 중심 대상으로 전국교법사단과 전국불자교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를 통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포교 방안은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현대는 유튜브가 대세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초중고 대학까지 전면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학교수업을 대체하였다. 우리 불교는 경전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이기 때문에 유튜브 강연이나 랜선 설법을 통한 이해와 소통이 이웃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자 가정에 인터넷 랜선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신행상담과 법회를 통한 설법을 해야 한다.

법사는 마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해야 한다. 마음은 철학, 종교학, 인문학, 정신의학, 심리학, 명상, 심성산업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청소년 유튜브 방송법회 온라인 랜선 설법이 청소년 포교의 활구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불교 교단에게 기회이다. 기독교는 이슬람교가의 전도를 위하여 유튜브 설교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목숨을 위협하는 먼 곳까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

5. 맺는말

이상과 같이 사찰과 학교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전법포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 또한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 수준에 알맞은 청소년 포교방안을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옛날 초코파이 사주고, 밥 사주면 절에 나오던 시대가 아니다. 코로나19는 종교계에 큰 위협이 되어 모이면 위험한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되었다. 종교의 쇠퇴기가 도래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사설(2021,10,20)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4차산업기술이 발전하였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형 메타버스(Metaverse)플랫폼인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동산’을 개관했다.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퀘스트를 해결하고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찾아가는 이 콘텐츠는 공개 4일 만에 95만 명이 방문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MZ세대 포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였다.

불교교단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스마트폰시대, 유튜브시대에 청소년 문화에 맞추어 디지털 불교교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청소년 전법교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8대덕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시민윤리와 세계인의 교양과 인격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 윤리와 생명윤리, 생태계윤리 그리고 국가에 애국하고 충성하는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정립하기 위한 애국심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소양(素養)를 갖추어야 전인적인 인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불교교단은 학교와 사찰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폭력, 술담배 중독, 이성 문제 등의 문제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년 불교청소년 리더들이 국제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템플스테이와 홈스테이를 하면서

친교를 맺고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갖는 미래불교의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형중(1984), 『불교사상』 1984년 9월호,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
- 김형중(1992),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 서울: 밀알출판사.
- 덕진(1995), 『불교 천자문』, 서울: 우리출판사.
-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편찬(1998), 『불교와 환경보존』, 서울: 아름다운세상.
- 김형중(2001), 「문학작품을 통한 법회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 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청소년문화연구소 주관 2001년 10월 세미나.
- 김재욱(2002),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지도 방안」,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지도 방안』, 2002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 세미나.
- 김형중(2007),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국사·철학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 『교육연구』제42집, 성신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형중·김문수(2008),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 서울: 운주사.
- 김형중(2012), 『왕초보 한문박사되다』, 서울: 민족사.
- 김형중(2015),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의 토론편」,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
- 동국대학교 불교아동교육연구소(2016),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2016년 인성 프로그램』, 대한불교 포교원.
- 성부현(201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 「청소년 활동명상 프로그램」, 『2015 청소년인성프로그램』.
- 차정연(2016), 「지적장애인을 위한 절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자립생활과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희봉(2016),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효, 부모님 감사합니다」, 『2016 인성프로그램』, 대한불교포교원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
- 김형중(2017), 『한글세대를 위한 부수 그림한자 50』,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한자교재 간행.

- 김의정(2017),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도예절 인성교육 교과서』, 서울: 민속원.
- 김의정(2017), 『다도예절인성 지도사 준수사범·사범과정』, 『2017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 서화교(지은, 2017),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2017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 김영래(2017),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경원(2018), 『불교 한자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 김형중(2018),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조강연 자료,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 선업(2018), 『신통방통 육방통』, 『2018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 이학주(2018), 『도토리카드를 활용한 팔정도 행복코칭』, 『2018 인성프로그램』.
- 김형중(2018),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서울: 운주사. 금해(2018),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 『2018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 정순희(2021), 『초등학교 명상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중(2021), 『시로 읽는 불교와 인생』, 서울: 민족사.

■ Abstract

**A study on stimulating youth missionary work through
personality education**

Kim Hyung Joong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plan to revitalize missionary work via personality education in a modern society where the youth religious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The eight virtues of personality education emphasized in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15, are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communication, cooperation, filial piety, and etiquette. These are in common with The Five Moral Rules, The Noble Eightfold Path and The Six Paramitas in Buddhism.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character education and Buddhist edification through youth missionary work and school curriculum in temples. For teenagers who are uninterested in religion due to the pressure of college entrance exams, it will be effective to provide Buddhist-related textbooks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s easily and interestingly.

For youth missionary work, the Buddhism proposes to operate a youth meditation center and YouTube Youth Buddhism Broadcasting Station along with the temple and the Buddhist school. Teachers, retired teachers, military judges, and meditation experts should gather their capabilities to make long-term plans for youth missionary work, focusing on what

adolescents want, and finding continuous solutions to yout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youth culture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customized for youth missionary work.

Keywords ● Personality education, Youth education, Youth missionary work, Buddhist practic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 논문투고일 : 2021. 12. 3 ▮ 심사완료일 : 2021. 12. 15 ▮ 게재확정일 : 2021. 12. 20

